

이탈리아, 그리스에서의 행복한 연수



장 만 희
세종특별자치시
시민안전국장
jangman@korea.kr

국외연수는 선택받은 소중한 기회

지자체 재난안전부서의 공직자들은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사시사철 고생하는 자리에 있는 분들이다. 이 분들에게 국민안전처와 한국방재협회가 주관해서 이런 기회를 매년 정기적으로 갖게 해주고 있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이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 많은 국외연수기회를 가지기도 했지만 지자체 일원으로서 참여하여 연수기회를 가진 것은 처음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서로 지자체간의 정보를 교환하고 일면식 없는 분들과 함께하면서 소중한 인연을 갖는 것은 늘 새롭기만 하다. 하지만 나라의 세금으로 나가는 것이기에 공직자 연수목적에 충실해야한다. 공직자 국외연수는 여행을 하는 게 아니고 선진국의 재난안전 행정제도를 배우고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의 행정을 발전시키고 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수적으로 치유와 충전의 시간도 갖고 그 나라의 문화 체험을 통해 개개인의 지식과 교양을 함양하는 목적도 있다.

선진국의 재난행정 현장에서 얻은 교훈

이탈리아, 그리스에서의 연수는 장거리를 넘나드는 강행군이였다. 하루에 어떨 때는 버스로 다섯 시간을 육로를 주파하고 배를 다섯 시간이상 타기도 했다. 재난안전을 담당하는 책임자로 공직자로서 많은 교훈을 얻었다. 솔직히 말해 필자는 우리나라 90년 초 반부터 선진외국의 행정을 배우고자 많이 나갔었다. 그 당시만 해도 우리의 행정 수준은 크게 앞서지는 못했다. 이제는 대한민국이 전자정부가 세계최고 수준이고 각



분야 공학 기술도 선진국이다. 이제는 많은 나라가 우리를 배우고자 찾는다.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듯이 외국에 나가서 그들의 선진행정과 비교를 통해 새로운 것을 많이 배우고 또 다른 지혜를 얻는다. 금번의 연수내용 간략 적어본다.

첫 번째로, 이번에 많은 인상을 받은 것은, 이탈리아 방문기관으로 물의 도시 베네치아가 수몰위기에 직면해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한 모세프로젝트 사업의 현장이다. 베네치아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로 해수면이 상승하고 있고, 해일의 피해가 점증하고 지하수의 과다사용에 따른 지반침하로 인해 위기감을 안고 있다.

사업명은 성서에 나오는 모세의 기적 그 모세이다. 길이 20미터 높이 30미터 무게 300톤의 금속방벽을 78개를 연결해 석호바닥에 설치한 5조규모의 사업이다. 해수면이 일정수준 오르면 자동으로 장벽(베리어)가 10층높이 댐으로 세워지고 일정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가라앉는 원리다. 사업이 신 베네치아 컨소시엄 대역사 프로젝트이고 우리나라 새만금사업의 규모와도 비 할 수 있을 만큼 대단했다. 모세프로젝트 견학에서 얻은 교훈은 당장 공학적 기술을 득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기후변화로 재난이 언제 다가올지 모른다는 것이다. 홍수로 인한 저지대 침수 해일의 급습 등 대규모 재난을 국가가 대비해야 한다는 교훈이다.

두 번째로, 재난 참사의 현장이다. 프랑스 동북부 돌로미티 지역 바이온트댐이다. 카르타고 명장 한니발이 기원전 로마를 정벌하고자 추위를 이겨내며 코끼리 37마리를 이끌고 넘던 알프스 준령의 계곡 피아베강지류 산자락에 위치한 댐이다.

1957년에 착공해 1960년에 완공되고 불과 3년 만에 홍수 산사태로 최악의 재앙을 초래한 이탈리아에 오점을 남긴 흑역사다. 물에 잘 녹는 석회암지대 댐이 들어서지 말아야할 장소에 댐건설, 댐건설과정에 정경유착과 무리한 설계 등 인간의 탐욕과 비리가 빚어낸 참사다. 공식적으로는 2500명이 희생되었다고 하나 실제 5천명이라고 하니 끔찍하다. 2008년에 유네스코가 인류역사상 기억해야 할 사고지역으로 발표했는데 2002년까지만 해도 접근이 금지되었으나 공개하고 있다. 댐은 붕괴되지 않은 채 흉물처럼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다. 댐 주변의 거치대에 노란 리본들이 주렁주렁 걸어 놓은 모습들은 우리나라 세월호 참사현장의 그 모습이다. 우리나라 세월호참사도 넓게 보면 원인은 비슷하다. 대형재난은 언제나 인간의



방심과 탐욕 부정부패 등에서 나온다. 이런 재난대형 현장에서 우리가 교훈을 얻는 것은 어떻게 왜 일어났으며 어떻게 대처했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고 다시 재발하지 않는 데 있다.

세 번째로, 방문기관 이탈리아 국립화산지진센터(INGV)이다. 유럽전역에서 일어나는 지진을 분석하고 연구하는 기관이다.

지진과 쓰나미, 화산, 기후변화 등을 총체적으로 연구하고 있었고 GPS로 유럽전역의 지진활동을 실시간으로 계속하여 바로바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탈리아는 화산과 지진의 나라다. 기원후 79년 폼페이 베수비오화산의 대폭발이 있었고 지금 시칠리아 에트나화산이 가장 활발하다. 우리가 방문예정인 페루자 지진현장은 때마침 지진발생우려로 외교부의 방문자제령이 내려 아쉬웠지만, 지난해 10월 지진규모 6.2로 100여명의 피해가 있었다. 지진화산센터는 1천 년 전까지의 자료를 축적 관리하고 있었고 실시간 예보를 한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9.12 경주지진을 계기로 결코 안전한 나라가 아니다. 우리나라도 실시간 지진대응체계를 갖고 신속한 예보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 우리나라 지질연구소가 그런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연구조직역량을 극대화하고 투자를 통해 예보과학화와 첨단화를 도모해나가야 한다.



네 번째로 그리스 방문기관인 화산섬의 티라 재난대응센터 방문이다. 티라섬은 그리스 하단 크레타 섬으로 가는 길목 아래의 인구13천명의 산토리니로 불리는 아름다운 섬이다. 기원전 1500년 큰 섬의 대폭발로 칼데라 형성과 크레타문명을 파괴하고 근세에는 50년대에도 분화가 있었다. 티라 재난대응센터는 우리나라의 소방서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었다. 지금도 화산섬이 언제 폭발할지 몰라 늘 자연재난에 대비하고 있었다. 우리가 방문한 시간에 일요일이어서 소방서 근무책임자와 인터뷰를 했다. 정상근무중이고 2명이 비상대기하고 있었다. 대원들은 6명의 계약직이 있고 의용 소방직 대원이 부분 구성돼있다. 그들의 근무는 일부는 농사지역에 나가 늘 예찰감시를 한다.



산토리니 섬에서 재난발생시 모든 차량이 동원되는 체제다. 최근에 지진으로 인한 건물훼손 피해사례는 없다. 긴급 상황 발생 시에 199번으로 신고전화하면 상황파악하고 바로 출동한다. 사고지역으로 가면서 서장에게 직접보고하고 인근 시로스섬에 보고한다. 사고수습책임자는 소방서장이다. 지진발생시 소방서장에게 모든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다. 건물 매몰사고자가 발생하면 크레타섬의 '에막'이 헬기로 출동한다. 의사 등 모든 응급시설이 갖추어져 있다. 상황에

따라 크레타섬으로 가지 않고 아테네로 직접 후송한다. 소방서장 지휘 책임 하에 그 밑에 반드시 건축전문가 의사가 따라 붙는다. 수습은 기계장치팀과 지원팀 통신팀이 꾸려 진다. 보고체계는 시로스섬 본부→아테네의 재난관리청으로 보고된다. 그들의 근무체계는 정규직들은 24시간근무하고 이들은 휴무다. 소방서장은 월~금 8시간을 근무한다. 전 세계 각국의 소방 관련자 자원봉사자들이 섬을 자주 찾는다. 최근 발생한 재난으로는 3년 전 화력발전소 폭발사고가 있었다. 그들은 지진구조와 관련해 늘 대비훈련을 하고 있었다. 지진세미나를 통해 전문 교육을 받는다. 지진피해 유형(수직형/ 수평형)에 따라 어떻게 구조하느냐 등이다. 시로스섬에서 직접교육을 시킨다. 섬의 소방자원봉사자 25명이 된다. 최근 5명 더 늘어났다. 호텔에도 철저히 재난대피 등 자체교육을 시킨다. 평시에는 구조역량을 키우고 조직 자체교육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인터뷰 말미에 소방서장이 왔다. 교훈으로 재난은 훈련을 통해 늘 위기에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탈리아, 그리스 두 나라에서의 문화체험

국외연수는 문화체험도 중요하다.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그들의 삶속에 들어가 보기도 하고 음식문화도 접해 보고 그 도시의 도로 교통 환경 실태도 직접 체험해보는 것은 플러스 알파이다. 살아있는 현장교육 이었고 교양함양과 정신적으로 쌓은 자양분이 되었다. 서양의 찬란한 문화를 때론 책을 통해 간접적으로 체험하기도 하고 세계문화사 서양사를 읽으면서 늘 가고 싶어 했던 곳이 그리스, 이탈리아다. 이 두 나라는 고대부터 민주정치를 싹틔우고 공화정을 실시하고 막강한 제국으로 세계사 중심에 있었다. 기독교가 꽃핀 영광을 안고 있는 나라이다. 비록 두 나라를 주말간산 격이고 피상적이긴 하지만 직접 체험토록 기회를 준 것은 엄청난 행운이고 축복이다.

첫 번째 문화체험으로 베네치아이다. 소설 베니스의 상인, 베니스 영화제로 유명한곳이다. 118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물의 도시다. 그 중심에 베네치아 공화국 번영의 시대를 풍미한 유물인 산마르코 대성당과 두칼레궁전이 화려하다. 산마르코광장은 ㄷ자 형태 거대한 홀처럼 보인다. 나폴레옹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응접실이다. 라 할 정도이다. 성 마르코 대성당은 이집트에서 모셔온 베니스의 수호성인 산마르코 유골을 안치한 대성당으로 마르코는 마가복음의 그 성인 마가이다. 13세기 초 십자군 전쟁시에 전쟁비용을 마련코자 콘스탄티노플(이스탄불)에서 약탈해 가져온 많은 비잔틴보물들이 있고 베네치아 힘의 상징 네 마리 청동마상은 나폴레옹이 파리개선문에 가져다 걸었던 것인데 되찾아온 주요 문화재이다. 또 하나의 명물 세계문화유산지정 토스카나 주 피사의 사탑이다. 라스페치아의 근교 해안절벽의 마을 친퀘테레를 잠시 보고 토스카나 피렌체로 가는 길목에서 항구를 끼고 있는 조그마한 피사마을을 찾았다. 로마네스크 양식의 흰 대리석탑은 5.5도가 기울어진 사탑이다. 피사 두오모(돔)광장의 피사대성당에 부속된 종탑이다. 12세기 초반 건설당시부터 지반이 가라앉아 오다가 1990년초 한계치에 이르러 첨단 기술을 동원해 전면 보수한끝에 관광객들에게 2000년 초부터 개방하고 있다.

세 번째로 피렌체다. 르네상스와 천재들의 도시, 꽃과 예술의 도시 피렌체는 토스카나 주의 중심으로 도시자체가 아름다운 문화예술작품이고 박물관이다. 무엇보다 피렌체를 르네상스의 중심으로 꽃피운 메디치가문의 숨결이 살아있는 곳이다. 대서사시 신곡의 단테가 활동하던 주 무대고 거장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보티첼리가 활동한 곳이다. 행정중심지 시뇨리아 광장은 14~16세기 피렌체 공화국 청사였던 베키오 궁전, 우피치 궁전, 시뇨리아 궁전으로 둘러싸여 있다. 보티첼리의 비너스의 탄생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이 유명하다. 피렌체상징 랜드마크인 부르넬레스키가 완성한 ‘꽃의 성모마리아 대성당’ 두오모(돔)와 85미터 지오토 종탑이 화려하고 압권이다.

네 번째로 로마 바티칸궁 방문이다. 카톨릭 신자들이 가고 싶어 하는 로망이다. 미술과 예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고 싶은 곳이기도 하다. 266대 프란체스코 교황이 계신 곳이다. 산 피에르 대성당을 둘러보고 이어서 미술관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정원에 세워진 모조그림축소판 앞으로 이동해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장화의 의미를 충분히 미리 설명 듣고 들어가면 이해가 쉽다. 바티칸미술관은 조각과 천장화의 洪水이고 寶庫이다. 미술관 규모는 실로 방대하다. 역대로마교황이 수집한 미술품고문서들을 수장하고 있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가 그린 벽화천장화를 보면 감탄하지 않을 수 없다. ‘천지창조’ ‘최후의 심판’ 등 인간이 어떻게 천장을 향해 저런 대작을 누워서 그리는 게 가능한가 말이다 욕창이 걸릴 만도 하다.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등은 르네상스시대 위대한 거장이다 보존기술에서 앞선 일본이 문화재 보존처리를 해서 저작권 등을 갖고 있어 관람객의 사진 촬영을 금했다. 저팬머니가 이곳에도 침투했다니 씁쓸하다. 그림들이 모두가 대작이고 수많은 위대한 화가들이그린 걸작들이다. 전문가에게 그 많은 성화들 그림 하나하나 설명을 듣는다면 일주일도 부족하다.

그 다음으로는 그리스 아테네 아크로폴리스 언덕위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이다. 그리스는 제우스 포세이돈 아테네 아프로디테 신 등 우리의 기억 속에도 있는 신화의 나라이다. 현재도 그리스 국민들의 삶속에 살아 숨 쉬고 있는 것 같다. 그 중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하고 있는 유네스코의 마크가 파르테논 신전이다. 파르테논은 ‘처녀의집’ 아테네 여신을 모시는 곳이란 뜻이다. 2500년 전 우리나라 고조선시대에 거대한 석조물이 지어졌다는데 경이롭다. 폴리스 언덕으로 오르는 길에 조수미가 공연한 온데온 야외극장과 에딕테온 신전과 니케신전이 있다. 그 다음으로 펠레폰네소스 반도로 들어가는 고린도 대운하를 거쳐 전설의 유적지 고린도로 들어가면 비범한 해발575미터 바위산 아크로 고린도산이 우뚝 솟아 있다. 산머리에 아프로디테신전이 있었고 시지프스의 신화 전설이 서려 있다. 통나무철학자 디오게네스가 활동했던 무대이고 오이디푸스 콤플렉스 주인공 오이디푸스가 버려진 곳이기도 하다.

또 다른 티라섬(산토리니섬)으로 석양 백색건물 우리나라 모 이온음료 광고에 탈런트 손예진 양이 나온 이하마을로 유명하다. 크기가 울릉도 규모인데 우리나라 울릉도를 관광지로 조성하면 이에 못지않게 더 아름다울 것 같다. 우리나라 제주도도 덜 알려져서 그렇지 세계적인 아름다운 자연유산들이다. 이탈리아 그리스는 찬란한 역사를 가진 나라다. 그리스는 유럽문명과 민주주의 발상지고 대제국 로마로 대변되는 이탈리아는 말 할 것 도 없다. 죽기 전에 한번쯤 가볼만하고 권장하고 싶다. 놀라운 문화예술의 체험이다. 세계사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을 직접

현지에 가서 문화유산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연수의 청량제였고 탄산수 사이다였다.

다시, ‘재난 안전지킴’이 본연의 자세로 매진

짧은 지식에 두서없이 서책, 가이드의 이야기, 실제 현장에서 눈으로 본 소감 등을 이번연수에서 메모한 내용을 기초로 적어봤다. ‘적자생존’ 적어야 생존한다고 해서 늘 스케치하고 낙서하고 글을 생각하면 적어놓는다. 지혜와 영감을 얻고 공부도하고 기록으로 남겨놓기 위해서 메모를 했다. 여행기는 기록으로 남기고자 개인적으로 쓰는데 공적 연수기를 기고한 바 없다. 그런데 국외연수의 그림자를 지우고 업무에 매진하려는데 연수를 뒷받침 해주신 협회 성규식 실장으로부터 소감을 제출해 달라 명해서 난감하나 줄필이지만 몇 자 적어보았다. 단장을 맡은 죄이다. 좋게 읽어주었으면 좋겠다. 아무튼 절미하고, 이번연수에 참여하신 43인 모두 건승하고 발전했으면 좋겠다. 우리나라 최고의 재난방재전문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한국방재협회가 있는 한 뒷받침 하에 지방자치단체 재난방재 국외연수 프로그램은 계속 발전해 나가리라 본다. 百聞不如一見이다. 밖에 한번 나가보면 외국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진다. 직접 그 나라의 문화를 체험해 봐야한다. 개인 치유에도 좋고 그래서 지방공무원 국외연수가 꼭 필요하다. 어느 자치단체나 마찬가지로겠지만 연중 내내 재해예방에 몰두하고 음지에서 묵묵히 책임감을 갖고 열심히 일하지만 빛나지 않는 공무원들이 재난부서 공무원들이다. 그러나 자치단체장들은 잘 안다. 국민들이 편안하게 생을 영위하는 것도 이들의 덕분이란 것도... 天下雖平 忘安必危, 즉 천하가 비록 태평해도 안전을 잊으면 반드시 위태롭다. 병서의 말을 참조해 내가 만든 한자 造語다. 재난부서 공직자들은 그 본연 자세로 돌아가야지.^

